

차문화협 '차의 날' 행사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오는 5월 25일 '제25회 차의 날'을 맞아 22일 경기도 광주 조선관요 박물관에서 '제16회 전국차인큰잔치'를 개최한다.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광주시, 전남 보성군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차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들차회, 차만들기, 차 관련 자료 전시회, 차예절 발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차음식 경연대회 대상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근홍)는 5월 25일 서울 경희궁에서 '제25회 차의 날 기념행사' (사진)를 개최한다. 송정전 중정과 잔디밭 등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전국 20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의 날 제정 선언문' 낭독과 차의 날 경과보고, 기념식 축하 헌다례, 두리차회 등이 펼쳐진다.

'이름다운 분청 찻그릇'展

도예가 이수종씨가 5월 21일까지 대구 예술갤러리에서 20번째 개인전 '이름다운 분청 찻그릇전'을 개최한다. 90년대부터 분청사기를 만들어 온 이씨는 전남 영암 지역의 흙으로 빚은 질박하고 소박한 분청 찻그릇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철화기법을 활용한 철화분청항아리, 다완, 철유항로, 귀얄편병, 찻잔, 티빙발(鉢), 연적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053)426-1515

매암차박물관, 나눔의 축제

경남 하동 매암차문화박물관(관장 강동익)은 5월 20~22일 제6회 나눔의 축제를 개최한다. '차와 사람의 만남, 그 초록빛 평화의 공명'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차 유품 전시, 들차회, 차만들기 체험, 차문화 강의와 사람의 활채어 기증 모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정서은 할머니 1주기 추모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055)883-35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길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5월 7일 열린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다.

해외진출 할 '한국대표차' 엄선

제5회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 열려

"어떤 차가 좋은 차인가요?"

차인이라면 한번쯤 받아봤을 질문이다. 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마련이다. '곡우차' '우전차' '수제차' '야생차' 등 차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지만, 정작 그 차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차문화 운동'이 차라는 존재를 알리고 차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섰다면, 최근에는 차의 품질을 감별하는 품평(品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객관적인 차 품평은 소비자에게는 차 선택 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세계 유수의 차와 경쟁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지역 차문화 행사 기간에 '보성명차선정대회'와 '울

해의 명차 선정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좋은 차'를 가려보고, 이를 통해 제다기술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차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차 생산국들은 세계적인 품평대회를 열고 차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제다기술 발전의 방향이 되는 차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5월 7일, 제31회 보성다향제 기간에 열린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은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성군과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차인연합회와 한국국제차

시중 판매 제품 구입해 심사

녹차·보성제다·곡천다원

발효차·쌍계제다·곡천다원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은 해외 차 시장에서 경쟁할 우리 차를 선별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사진은 국제명차품평위원회 공수원 교수가 마른 찻잎의 향을 심사하는 모습.

연구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중국 절강성 항주에 본부가 있는 국제명차품평회에 출품할 국내 차를 선별하는 대회다. 우리나라 차 생산자들이 국제 행사에 차를 출품하는 길이 흔치 않은 현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 차가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국제명차품평위원회 공수원(중국 절강대·정인오한서대) 교수, 전남차시향장 김주희 선임연구원·김종태 연구원, 한국차인연합회 김대성 고문, 선혜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쌍계제다 김동근 대표 등이 감수를 맡았다.

올해에는 녹차 24종과 발효차 10종이 예선심사에 올랐다. 차는 출품 신청을 한 제다업체의 제품 중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g 단위의 포장 제품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했다. 품평은 마른 잎의 외형과 녹차는 80℃, 발효차는 100℃의 물로 5분간 우려낸 후 색향미(色香味) 그리고 우려내고 난 후의 찻잎을 각각 100점 기준으로 채점했다. 마른 찻잎을 심평판에 놓고 가볍게 흔들어서 고루 퍼진 찻잎의 색깔과 투명도, 형태, 파손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또한 우린 찻물의 색이 맑고 깨끗한지, 찻물의 향과 맛이 순수한지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특히 올해 품평 대회는 상대평가로 통해 우수한 품질의 차 1~2종을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90점 이상을 획득하는 차는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한 품질의 차가 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품평 결과 녹차부문 금상은 영농조합 보성제다의 보성녹차와 곡천다원의 청담차가, 발효차 부문은 쌍계제다와 곡천다원이 각각 수상했다. 선발된 제품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명차품평대회에 출품돼 세계 유수의 차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를 총괄한 정인오 교수는 "국내 제다 기술의 현주소와 해외 차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서로 기량을 겨룰 수 있다면 행사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국산 차가 국제 시장에 선보이도록 제다인들이 더욱 분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보성=여수령 기자

조선시대 ③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28)

격동기를 지나 문물이 정비되고 국가가 안정되니 문운(文運)이 일어났다. 고려 유신들 대부분이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여 그들의 다풍(茶風)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김종직, 김시습 등 차인의 출현으로 면목(면목)을 일신하게 된다. 신진세력들은 권력의 자리매김에만 힘을 기울이느라 일시적으로 차의 산지가 황폐하게 되고 차 마시는 일도 국가적 행사나 종교 의식을 제외하고는 미약해졌다. 그런 속에서도 권근, 정도전, 정인지, 최항, 신숙주 등의 선비들이 차를 즐겼다. 특히 김시습은 차를 직접 길러 만들었으며 차의 정신적 세계를 유불선의 형이상학적 세계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교류가 잦았으

차인을 둔 영남학파의 종조다.
③ 김시습(1435~1493):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차의 달인이다. 그의 초암 다법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지은 <금오신화>에도 차 이야기가 나온다.
④ 성현(1439~1504): 명나라에 두 번이나 다녀온 차인으로 다시 '영명심승(永明尋僧)' 등과 <용재총화>를 남겼다.
⑤ 허침(1444~1505): 중국에 다녀온 차인으로 좌의정을 지냈으며 다시를 남겼다.
⑥ 12월에 대마도 태수에게 차 10근, 다식 2각 등을 내렸다.
⑦ 주덕의 때 능사(陵司)가 차병과 다종을 준비하여 차를 올렸고 휘

김시습, '茶정신' 유불선 세계로 승화

니 이때 오가는 물품에 차와 차도구들이 많았다. 궁중의 다방을 정비하여 사존원(司尊院)으로 개칭하고 능(陵)에 주다(煮茶)를 행했다. 중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차인들이 꾸준히 차를 즐겼고, 일본은 명과 직접 교역하면서 중국차의 영향을 받았다. 능아미(能阿彌)의 후광을 입은 춘전주광(村田珠光)이 죽리 의정의 다도사범이 되면서 초암차(草庵茶)를 퍼뜨려 훗날 일본 다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① 안승선에게 명하여 창성(昌盛)과 윤봉, 장정인에게 다종 20개씩과 다른 품목들을 회증(回贈)했다.
② 김종직(1431~1492): '백성들의 다세(茶稅)를 덜어주려고 관에서 다원을 개간해 직영한 차인이다. 문하에 남효온, 조위, 정희량, 이목 등의

덕전 조석 상식 때도 차를 올렸다.
⑧ 방(方)을 원(院)으로 승격시켜 찻잎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의 일을 맡도록 했다.
⑨ 오관(1435~1504): 명대 예부상서를 지낸 차인으로 심주와 소조의 호구산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 끓여 마신 다법(茶法)이 있었다.
⑩ 육용(1436~1494): 명대 누동상봉(婁東三鳳)의 한 사람으로 차를 즐겨 다시를 남겼다.
⑪ 오조: 명대 시인으로 음률에 밝아 차를 마시며 즐겨 들었다.
⑫ 춘전주광(村田珠光): 초암에서 자득하는 다법을 익혀 심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면을 강조한 나라류(奈良流)의 개조다.
⑬ <가목지>에 차밭의 면적과 이름들이 적혀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road)

	한국	중국	일본
조선시대	1431 다종(茶種) 20개씩 회증 ① 김종직의 출생 ② 1435 김시습의 출생 ③ 1437 백성들의 유망(流亡)을 막음 1438 전라, 경성에 공법(黃法) 시행 1439 성현의 출생 ④ 1443 지방의 진상을 지정 일본에 통신사를 보냄 1444 허침의 출생 ⑤ 1445 대마도주에게 차와 심을 줄 ⑥ 1446 공병 폐단 역설, 영릉주다의 ⑦ 전문역(轉運)을 두다 1447 다방(茶房)을 사존원(司尊院)으로 개칭 ⑧ 왜인과의 교역 사목(事目)을 정하고 사무역 금지	1435 오관(吳寬)의 출생 ⑨ 1436 육용(陸容)의 출생 ⑩ ⑪ 오조(吳兆)의 활동	1433 춘전주광(村田珠光)의 출생 ⑫ 1434 명의 사신 임국 ⑬ ⑭ <가목지>(嘉木誌)
명대		실정(室町)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족의 깨달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대)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달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실패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聖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이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

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를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

리에 좌지우지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의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고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들든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冊(冊)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

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달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달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도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농협 751025-51-021224 (여금주: 김팔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